

수어와 구어 통역 교육 발전 양상 비교 연구*

한 현 희
(한국외대)

1. 서론

최근 ‘수화(手話)나 수어(手語)나’ 용어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¹⁾ 한국어와 구별되는 농인들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어를 공용어로 공인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담고 있는 수화언어법(가칭)²⁾ 제정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법

* 본 논문은 2015년 한국번역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1) 용어의 논의는 이미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농인들이 사용하는 손짓 언어가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 엄연히 문법체계와 표현양식을 갖춘 하나의 언어라는 관점을 피력하여 수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강주혜 1998; 강창욱 2000; 최상배, 안성우 2003/2006)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수화라는 용어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언어적 접근법을 지지하는 입장과, 과거 구화가 구어로 바뀌어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사례에 비추어 구어에 대비되는 언어로서 수어 용어 사용의 합당성을 근거삼아 ‘수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기존에 이미 고유명사로서 제시되고 있는 수화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안의 명칭으로 용어 사용의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그간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수화’가 아닌 비장애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수어’라는 용어 사용 주장의 기저에는 단순히 언어적 표현의 차이를 뛰어넘어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농(聾)인(聾)들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1995년 일본에서 기무라 하루미와 이찌다 야스히로가 『현대 사상』에 발표한 ‘농문화선언’⁴⁾을 살펴보자(기무라, 이찌다 1995: 8;곽정란 2014.12.22. 재인용).

‘농인’이란 일본어와는 다른 언어인 일본수어를 말하는 언어적 소수파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농인에 대한 정의이다. 이것은 ‘농인=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즉 ‘장애인’이라고 하는 병리적 관점에서부터 ‘농인=일본수어를 일상 언어로서 사용하는 사람’, 즉 ‘언어적 소수파’라고 하는 사회적, 문화적 관점으로의 전환이다.

상기의 주장은 농을 청각장애의 정도가 아닌 수어와 연결 짓고 있다. 즉, 수어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가 아닌 소수언어이며, 자연스레 수어를 기반으로 농인의 문화⁵⁾를 형성해가는 이들에게 수어는 제1의 언어, 모어(母語)임을 강조하게 된다. 이는 결국 장애/비장애라는 병리적 관점의 이항적 분리를 벗어나 주류 언어인 한국어와 비주류 언어인 수어라는 언어적 관점의 새로운 해석을 낳는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수어를 하나의 언어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06년 UN 국제 장애인 권리 조약은 수어를 음성언어와 대등한 언어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현재 수어를 국가 공용어로 인

- 2) 현재 국회에 발의된 수어 관련 법안은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안, 수화기본법안, 한국수어법안,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언어로서의 수어의 지위, 농인 가족 지원조항과 농문화 지원근거 마련, 장애인 아동의 수어교육 실시 근거 마련, 수어 관련 용어 정의, 농인들이 조기 수어교육을 받을 권리 명시, 수어연구소 설치, 농인의 권리보장 근거의 구체적 명시 등을 다룬다(김철환 2015.04.17).
- 3) 듣지 못하는 사람을 옛날에는 벙어리, 귀머거리로 불렀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농아(聾啞) 또는 농아인(聾啞人), 농인(聾人), 청각장애인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본고에서는 이들 용어를 의미의 차이를 두지 않고 번갈아 사용하기로 한다.
- 4) “Declaration of Deaf Culture”(Kimura, Ichida 1995).
- 5) 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음성이 아닌 시각을 중시하는 생활문화를 일컫는 농문화에 대한 문화적 권리 주장은 이미 1970년대부터 있어왔다.

정하거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들이 44개국에 이른다.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완전한 사회참여가 세계적 화두가 된 오늘날 수어 통역 교육⁶⁾은 물론 수어 통역 환경의 세계적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외국어 통번역 교육과 마찬가지로 타문화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수어 통역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령, 미국은 수어를 프랑스어나 독일어와 같은 외국어로 인정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 과정에서 인문 혹은 선택 강좌로 수어 강좌를 개설해왔다(Wilcox 1989; Wilcox, Pyton 1999; 최상배, 안성우 2003/2006: 256 재인용). 그러다 1980년대 언어로서의 수어가 인정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지역사회 전문대학에서 수어 통역 훈련을 담당했으나 최근에는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서 심도 있게 ASL(American Sign Language, 미국수어)과 영어를 훈련시키고 있다(Roy 2000; 최상배, 안성우 2003/2006: 238). 호주 매쿼리 대학은 물론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국제회의 통역 교육으로 유명한 유수의 대학에서도 수어 통역 과정을 정규과목으로 도입, 교육시키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의 파리 제3대학 통번역대학원(ESIT)이다.

이뿐 아니다. 2012년 1월 국제 회의통역사 협회(AIIC)는 제35회 부에노스 아이레스 총회에서 수어를 AIIC의 공식 언어조합에 포함시키고, 회의통역을 수행하는 수어통역사 역시 AIIC 정회원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AIIC는 수어를 회의언어로 공식 인정하고, 동시에 수어 회의통역사를 구어 회의통역사와 대등하게 인정하는 첫 번째 국제기구가 되었으며, 구어통역사 팀뿐만 아니라 구어와 수어통역사 혼성팀을 제공하게 되었다.⁷⁾

-
- 6) 수어 통역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구어를 수어로 전달하는 수어통역, 수어를 구어로 전달하는 음성통역(읽기통역), 수어를 읽고 이를 받아 적는 필기통역이 그것이다. 이때 필기통역의 개념이 구어의 번역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본고에서는 통역을 중심으로 논의하지만 이때 구어나 수어 모두 번역이 제외되는 개념이 아님을 밝혀둔다.
- 7) AIIC의 이러한 결정 배경에는 수어통역사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의도가 담겨있다. 수어통역사들이 이미 몇 년간 대부분 국내행사일지라도 엄연히 (국제)회의통역 상황에서 통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프리시장에서 구어통역사와의 업무일수 비교 상으로도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원, 학교, 법정 등에서의 커뮤니티 통역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AIIC 정회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회의통역사’로서의 수어통역사에 대한 역할 정립과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AIIC 홈페이지).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떠할까? 국내 수어 통역 시장 또한 장애인 인권 신장과 사회적 참여 실현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장애인의 교육기회균등, 정보 접근성 보장이 실현되어 감에 따라 청각장애인들이 일반학교에서 함께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이 늘어나고 있고, 공중과 방송의 뉴스 프로에서만 볼 수 있었던 수어통역방송이 케이블 등으로 점차 확산되는 등 기존의 자원봉사 수준을 뛰어넘어 전문 수어 통역에 대한 수요로 급변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구어통역사와 수어통역사의 협업 시장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게다가 지난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한국의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하며 정부에 수화언어 관련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는 만큼 한국수어의 언어적 지위 인정은 시간이 다소 걸릴지라도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현재 발의된 수화언어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어에 대한 언어적 인식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밀한 수어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수어 교육, 수어 교재 제작 및 보급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수어연구소가 설립되어 수어에 대한 언어적 연구가 활성화될 것이다. 국립국어원은 신조어, 전문용어를 표현할 수어 개발을 위해 올해 8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김윤중 2014.09.25). 비장애인 학교에도 수어교육이 도입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언어의 ‘동등한 접근성’ 원칙이 강조되면서 통역의 사회내적 측면이 점차 중요하게 될 수 있으므로 미국과 같이 교육환경에서의 수어 통역(교육 통역)이 가장 중요한 사회 내 통역으로 (Pöschhacker 2004; 이연향 외 역 2009: 30)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수어통역센터도 확충되고 국가 행사는 물론이고 극장, 박물관에서도 수어 해설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되며(김윤중 2014.09.25) 그간 명목뿐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수어통역방송 또한 실질적으로 농인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크게 개편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전문 수어 통역 시장과 전문 통역 교육 시장의 확대는 물론 일반 대학교 및 통번역 교육기관에서의 구어와 수어 통합교육 가능성, 구어와 수어통역사의 전문적 협업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수어 통역이 대표적인 지역사회 통역의 하나로 오랫동안 지역사회 커뮤니케이션의 큰 축을 담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통번역학계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최근에 이르러서이다. 또한 국내 수어 통역 시장의 수요변화가 궁극적으로 수어와 구어 통역 환경은 물론 통역 교육의 변화로 이어지리

라 예상되지만, 구어 통번역 교육기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나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어 통역 교육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구어와 수어 통번역 통합 교육 실시는 물론 구어와 수어통역사 협업 체제를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서구의 상황과 대비된다. 이로 인해 수어 통역 교육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고, 수어와 구어 통역 교육의 특징, 차이 평가가 어려운 만큼 향후 통번역 교육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본고는 비교교육학 관점에서 수어와 구어 통역 교육의 변화, 발전의 과정을 비교 고찰하여 통역 교육 발전 양상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통번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비교교육학은 비교를 수단으로 교육사를 비롯하여 교육현실의 모든 영역들을 연구하며, 교육학의 근본과제인 현실파악, 현실해명 그리고 현실형성과 개선으로 이어진다(R hars 1995: 18; 정기섭 2003: 12 재인용). 본 연구는 통역 교육 현실 형성과 개선을 위한 현실 파악과 해명이라는 기초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비교 연구 방법은 일반적으로 1) 연구 대상의 실태를 그대로 기술하는 사실적 기술의 단계 2) 대상에 대한 실태를 기술한 후 그에 대한 설명을 가하는 설명의 단계, 3) 비교 준거에 따라 대상 실태를 상호 비교하는 비교의 단계, 4) 실태 비교 이후 구체적 결론이나 시사점을 도출하여 논의하는 시사점 및 논의의 단계로 이루어진다(이규환 1995). 이에 본고에서는 구어 및 수어 통역 교육 현실을 사실적으로 기술 및 설명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특징 및 차이점을 도출한 후 이를 근거로 시사점을 모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간략하게 과거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수어 및 구어 통역 교육의 기원 및 배경을 살펴보고, 본격적인 기술 및 비교분석 대상 시기는 20세기 중반,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한다. 그 이유는 첫째, 수어 통역의 경우 문헌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어 통역 교육 및 활동에 관한 사료가 부재하여 근현대사 이전의 비교분석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둘째, 수어와 구어 통역 모두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 6.25 전란 폐허를 거쳐 본격적으로 교육력이 성장·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비교 준거는 통역 교육 발전의 척도라 할 수 있는 통역 교육 주체, 교육 내용, 통역 주체와 그 역할 및 주요활동분야, 연구 성과로 설정하고, 이때 분석 대상을 학교교육으로만 국한하지 않는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적 차원의 다양한 교육활동 또한 중요한 교육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2. 수어와 구어 통역 교육

2.1 수어와 구어 통역 교육 기원 및 배경(~광복전)

음성언어나 문자와 같은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위해 제스처나 표정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수어는 인류 최초의 담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성언어가 등장하면서 역설적이게도 의사소통의 일차적 수단이었던 몸짓의 언어인 수어는 기록되지도, 체계화되지도 못한 채 잊혀져버리고 구어만이 ‘언어’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듯 수어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나, 그것이 언어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 시기는 불과 50여 년 전의 일이다(이준우 2004). 우리나라에서는 1900년대 초 농사회의 모태라 할 수 있는 농학교⁸⁾를 중심으로 농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수어가 발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최상배, 안성우 2003/2006: 47). 그러나 농사회와 청사회, 농인과 청인간의 문화적·사회적 단절이 이루어져서도, 이루어질 수도 없는 만큼 수어통역의 역사는 수어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수어통역이란 “농인과 청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서 음성언어를 수화나 제스처 또는 그 반대로 수화를 음성언어로 전달하는 과정”을 말하며(이준우 2004: 82-3), 한국에서 최초의 수어통역은 아래의 기록으로 확인된다(제생원맹아부, 1938).

1916년 7월 28일 오사가 음아자 범죄사실 취조통사로서 경성 지방 법원에 출두함. 당부 직원 재판소 통사의 시작임.

즉, 수어 통역의 효시는 1916년 농인의 범법 사실에 대한 법원에서의 신문 통사이며(박민희 2004: 10; 김칠관, 윤병천 2011: 23), 이를 통해 근대 시기에 이미 법정 수어 통역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기록 외에는 과거 수어통역사의 활약이나 통역 방식, 통역 교육에 관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

8) 농인 사회가 형성된 시기는 19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가 최초로 평양에 맹아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이는 최초의 농학생들을 위한 특수 교육기관이었다. 그 후 1913년 조선총독부에서 맹인과 농인들의 교육 및 구제를 목적으로 한 특수교육기관인 제생원을 설립하였는데, 이것이 국립서울농아학교와 국립서울맹학교의 모체가 된다(계기훈 1999; 이준우 2004: 78 재인용).

고 있다. 한국에서 수어 보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계기는 1913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설립된 제생원 맹아부에서 농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정식 수어 교육과 1928년 제생원 아본과(啞本科)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수어 강습이다. 농아동의 특수교육에 있어 가정에서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농학생 뿐만 아니라 농학생의 가족을 대상으로 수어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다(박민희 2004). 그리하여 이 시기에 이루어진 수어 통역은 학교 교사나 가족에 의한 것이 일반적이었다(김칠관, 윤병천 2011: 23). 하지만 이러한 통역은 농인의 의사나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일종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오늘날의 수어 통역의 개념과 다르며, 사실상 통역이라기보다는 수어 통역 도우미활동이라 할 수 있다(이준우 2004: 91-3). 이렇듯, 일제 식민강점기를 지나 광복이후에도 오랜 기간 수어통역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통역인 또한 대리인 역할에 불과했던 만큼 수어 통역 교육이 이루어질리 만무하였다. 그러나 수어 교육과 통역 교육 부재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두 가지 시대적,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수어 통역의 수요자 측면의 문제이다. 1930년대 이후 일제 말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일본어 중심의 구어주의와 일본어 보급의 목적으로 인해 수어에 대한 억압이 이어지고, 그 결과 광복 이후에도 구화법(口話法)⁹⁾ 중심의 농교육이 실시되었다. 즉, 농아동을 교육하는 건전한 방법이 수어가 아닌 구화법인 독화기술(speech-reading)이라는 인식이 지배적 정책으로 작용하면서 수어가 구화적인 방법에 대한 보조수단쯤으로 전락한 것이다(이준우 2004: 129). 그 결과 농인이라면 모두 수어를 사용하며 농인 인구 전체가 수어 통역의 수요자일거라는 예상을 깨고, 수어사용 자체의 위축으로 인해

9) 독순술(讀唇術) 또는 독순법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러한 교육방법은 보청기를 사용하여 잔존청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상대가 말하는 것을 주로 시각을 통해 이해하는 독화지도(讀話指導)와 농아 스스로가 음성언어를 발성할 경우의 촉각·근운동감각을 동원하여 발어하게 하는 발음발어훈련(發音發語訓練) 등을 실시한다. 1779년 독일의 S.하이니케에 의해 처음으로 농아에게 구화교육이 실시되었다. 그 후 매사추세츠주(州) 교육국장 호레이스만에 의해 미국에 도입되었으며, 1892년부터 미국 전역에 구화교육이 널리 보급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미국과 유럽 각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에 이르기까지 농아교육에 있어서 구화교육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한국의 농아교육은 1881년 아인원(啞人院)에서 시작되어 그동안 주로 수어교육이 실시되어 왔으나, 마찬가지로 현재는 구화교육을 위주로 교육하고 있다(두산백과).

수어를 사용하지도, 아예 배우지도 못하는 농인들이 크게 늘어났다. 둘째, 한국 수어 자체의 발달 문제이다. 국내 농아인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본격적으로 사용한 수어가 사실 제생원 맹아부에서 사용된 일본 수어이며, 식민 강점기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구화법으로 인해 수어 자체가 탄압을 받았다. 그리하여 광복 이후 1947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서울농아학교 초대 교장인 윤백원에 의해 한글자모의 자형을 바탕으로 한글 지화가 창안될 정도로 수어 자체의 체계적 정립과 발달이 더디었다. 결국 수어 통역 수행의 필요조건인 언어와 수요 자체가 불안정했던 것이다.

한편 구어의 경우, 통역관의 활약이나 통역 교육에 관한 여러 문헌이 존재한다. 한국에서 통번역 교육을 담당한 최초의 공식기관은 사역원(司譯院)으로, 이 기관은 1275년(충렬왕 1)에 이루어진 관제 개혁에 따라 과거 통문관(通文館)을 개편한 것이다. 당시 고려는 주위 제국과의 관계교섭이 빈번하여 일찍이 역관(譯官)을 두고 한어(漢語)·거란어·여진어·몽골어·일본어 등 각각 전문의 어학을 연구·교육하였다. 조선은 이러한 고려의 전통을 이어받아 1392년(태조 1) 역과를 신설하고, 1393년(태조 2) 9월 예조 산하에 사역원을 설치하게 된다. 당시 역관들의 업무는 단순 통역에 머무르지 않았다. 사역원의 역관들은 통번역 업무 외에도 관련 행정업무, 외교 사절 업무 등 국제 정세를 직접 체험하고 당시 수준에서 세계화된 시야를 갖추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외교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외국어를 한다는 것이 당시로서 뛰어난 재능을 요구하는 것이었음에도 이들은 주로 양반과 양인의 중간인 중인 출신의 신분에 머무르는 등 사회구조적인 모순을 겪었다(유정화 2014). 한편 1883년 동문학(同文學, 일명 통번학교), 1886년 육영공원(育英公院)이 설립되었고, 뒤이어 1891년에 일어학교, 1894년에 영어학교가 세워졌다. 이는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1882년부터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도 조약을 맺고 통상관계를 맺게 되자 그 나라의 말과 문화를 아는 외교관 혹은 통역관의 양성기관 설립 필요성을 인식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 뒤 1895년 5월(고종 32) 「외국어학교관제」가 공포됨에 따라 새 학제의 외국어학교가 정식으로 발족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것이 바로 관립외국어학교이다. 관립외국어학교는 일어·영어·독어·불어·노어 등을 가르쳤으며 1907년 관립한성외국어학교로 개명한 이후 주도적으로 근대 통번역교육을 담당해오다 한일합방 이듬해인 1911년 9월 조선교육

령이 공포되면서 폐지되었다(국어국문화학자료사전).

한편 우리나라 최초로 등장한 서양어 통역사는 윤치호(1865~1945)이다. 그는 1883년 한미수호조약(韓美修好條約) 비준 때 초대 주한(駐韓) 미국공사 L.H.푸트의 통역관이 되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주사(主事)에 임명되어(두산백과) 근대 통역의 아버지라 불린다. 이렇듯 통번역 교육기관과 통역사들은 외교, 정치, 문화 등 국내외 정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20세기 식민지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역할이 사라지게 된다(김진아 외 2014: 317).

2.2 수어와 구어 통역 교육 발전

수어와 구어 통역 교육의 발전사를 정리하고, 비교분석하여 향후 통번역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기 위해 통번역 교육제도 변화에 근거하여 수어와 구어 통역 교육을 크게 시기와 단계별로 (1) 통역 교육 발아기(광복이후~1978년), (2) 통역 교육 성장기(1979년~1999년), (3) 통역 교육 발전기(2000년~현재) 세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¹⁰⁾.

2.2.1 통역 교육 발아기(광복이후~1978년)

가. 수어 통역 교육

해방 이후 한글 지화가 탄생하고, 학교에서 형식적인 농교육이 실시되면서 한국 고유 수어와 일본수어를 차용하거나 전이하여 한국수어의 기반을 다지고 정교화하여 사용하게 되었다(최상배, 안성우 2003/2006: 48). 이어 대한농아협회, 서울농아학교, 서울영락농인교회를 중심으로 수어교실을 개설하고, 수어 교육 책자를 발간하면서(이준우 2004: 93) 1960~7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수어가

10) 김철관, 윤병천(2011)은 수어통역의 역사적 흐름을 제 1시기(1960~1970년대), 제 2시기(1980년대), 제 3시기(1990년대~2000년 초), 제 4시기(2000년대~현재)로 구분한 바 있으며, 김진아 외(2014)는 한국외대통번역대학원을 중심으로 구어 통번역 교육을 1)맹아기(1979년~1988년), 2)전문 통번역 교육으로의 전환기(1989년~1998년), 3)전문 통번역 교육의 발전기(1999년~현재)로 구분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절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크게 발전하게 된다.

이 시기 수어 통역의 활동은 한국농아인협회의 설립과 발전의 부침에 궤를 같이 한다. 한국농아인협회의 전신인 자조자립단체 조선농아협회가 1946년 6월 창립, 1948년 사회단체 대한농아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농아인들의 권익을 위한 조직단체가 형성되고 통역 활동이 이루어졌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전면 중단되었다. 전쟁 이후에는 피난갔던 수어통역인 전원이 청각장애인들과 함께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를 조직하고 수어 통역 활동을 재개하였으며(박민희 2004), 1959년에는 세계농아인연맹(WFD)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통역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61년 정당 및 사회단체 해산 또는 통폐합 조치로 인해 농아인협회가 해산, 한국 사회복지사업연합회로 통합되어 농아분과위원회로 활동하면서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그 결과, 1980년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재인가를 받기 전까지 농학교 교사와 청각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수어 통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이준우 2004: 93). 즉, 국내 수어통역인들은 체계적으로 수어를 교육받고 통역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가족 중에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어를 익힌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광복 이후 1980년 이전까지 수어 통역은 정착되지 못하고 여전히 도우미 혹은 대리인의 역할에 머물렀다(Fant 1990; 김칠관, 윤병천 2011: 24 재인용). 1960~70년대 이미 경찰서, 검찰청, 법원 등과 같은 통역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수어 통역의 조건으로 자격유무를 따졌음에도 불구하고(김칠관 2003) 수어 통역활동이 체계성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어 학습 및 통역 교육기관과 더불어 통역 자격제도의 기틀이 부재하였다.

그러나 광복 후 1980년대 이전까지의 시기는 수어 통역 교육이라는 씨가 식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중요한 과정의 ‘밭이기’임이 분명하다. 첫째, 수어 통역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한국수어의 독자적 체계성 마련이라는 언어적 기반을 확보, 둘째, 구화법이 아닌 수어를 통한 농교육 실시로 수어 사용자의 인구증가라는 통역 수요자 확보, 셋째, 수어 및 수어 통역 교육과 수어 통역 활동 제도화의 근간을 형성하는 농아인협회라는 조직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하는 역사적 기반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나. 구어 통역 교육

일제 강점기와 해방, 한국 전쟁을 겪는 동안 국내 통번역 교육은 주춤하였다. 그러나 통번역 교육의 필요조건인 외국어 교육은 활발히 이루어졌다. 1952년 전쟁 직후 김홍배 박사가 동란 이후 초토화된 조국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어학교육과 전 세계로 뻗어나갈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를 설립하였다. 그 후 2년 뒤 1954년 1월 한국외국어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아 영어과, 불어과, 중국어과, 독일어과, 러시아어과를 개설하여 개교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서반아어과를 증설했다(한국외국어대학교 홈페이지). 그리하여 외국어를 전공하는 국내 유일의 고등교육기관이 출범하였고, 이를 계기로 외국어 교육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즉, 기존에 문학수업 일색이었던 일반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외국어 교육에도 어학수업이 추가되면서 실용성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사실상 1970년대 의사소통 중심 교수학습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 향상이 언어교육의 목표로 부상하고 이를 위한 언어교육-언어능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학습자가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Richards 2001; 정철자 2013: 158-9 재인용) 것과 유관하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언어의 네 가지 기능 즉,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외 제 5의 기능으로서 번역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번역 또한 고급 수준의 독자적인 교과목으로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이 강조되었으며(유명우 2000; 김련희 2011: 24 재인용), 번역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국어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때 번역은 독자적 학문영역으로서의 교육이 아닌 문법-번역식 언어교수법(grammar-translation method)의 일환으로, 언어를 학습하거나 평가하는 장치나 도구로서의 역할에 머물렀다. 즉, 번역이 언어의 하위개념이자 외국어 교육의 수단이라는 개념이 지배적으로 작용한 것이다(김련희 2011: 24). 그러므로 독자적인 통번역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잘 하면 누구나 통번역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선입견으로 인해 직업으로서의 통역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재하였다.

2.2.2 통역 교육 성숙기(1979년~1999년)

가. 수어 통역 교육

1980년대에 접어들며 수어 통역에 있어 새로운 변화의 장이 펼쳐지게 된다. 1976년 제31회 유엔총회는 “1981년을 국제장애인의 해로 한다”고 선포하고 장애인의 “완전참가”를 주제로 국제적인 운동을 전개한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로써 장애인의 전면적인 사회생활에 대한 참여, 다른 시민과 똑같은 생활 조건을 평등하게 누릴 것을 지향하는 사회적 노력과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촉구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농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평등에 대한 논의 또한 시작되었고, 농인들도 의사소통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수어 통역 서비스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수어 통역 문제가 전면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미국의 경우 미국장애인법과 장애인 교육법 개정 및 제정을 통해 법정이나 교육에서 수어 통역을 의무화하고, 농인을 위한 통역사기구(Registry of Interpreters for the Deaf, RID)를 중심으로 통역사 윤리 규정 확립, 통역을 위한 장소 제공, 수어 통역관련 신문이나 간행물 발행, 통역 서비스에 대한 보수 선례를 마련하였다. 동시에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교육 통역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교육관련 통역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마찬가지로 영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수어통역사 협회가 조직되면서 통역사들의 권익 보호 및 통역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반 정보와 교육에 관련한 내용을 제공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어 통역이 전문화된 직업영역으로 발전하게 된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추어 장애인 복지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농인들의 의사소통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 사단법인 한국농아복지회를 중심으로 수어통역인들의 체계적인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동시에 <수화교실>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학습장을 중심으로 하는 수어 학습 방식이 확산되면서 수어 학습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김칠관, 윤병천 2011: 24), 수어책 개발과 수어사전 편찬이 시작되는 등 수어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농교육이 통합적 의사소통법(Total Communication)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구어법에 대한 반성이 일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농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수어 교육을 언급하기 시작하는 등 수어에 대한 인식이 점점 변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어 교육은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수어는 국어 지도를 위한 수단이
 자, 말하기의 보조도구로 인식되었다(최상배, 안성우 2003/2006: 50). 게다가 대
 학중심의 수어 전문 교육이 이루어지는 서구와 달리 국내에서는 비조직적, 비
 전문적 방식으로 수어 교육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어 통역 교육 프로그
 램은 전무하였다. 통역 주체 또한 농인 가족이나 농인 학교 교사에서 벗어나 대
 학생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수어 교육을 수강하면서 통역활동을 하는 등 기존의
 범주가 확장된 긍정적 측면은 있었으나 여전히 봉사와 호의의 차원의 성격으로
 통역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990년대 초반까지 수어 통역은 전문적인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단순한 봉사활동으로 인식되었다. 실제, 통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도 거의 없었으며, 미숙한 통역사들의 활동으로 인해 통역의
 질 또한 천차만별이었고, 이러한 상황은 농인들에게 피해로 돌아갔다(이준우
 2004).

그러나 1990년대 초 수화통역사의 필요성(안일남 1992)과 외국의 수화통역
 사제도(강주해 1992), 수화통역제도의 확립을 위한 제안(이정섭 1992)과 같은
 수어통역 관련연구가 발표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국
 내에서 처음으로 수어통역의 제도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리하
 여 1996년에 수화통역 제도화를 위한 기초연구(김철관 외 1995)가 이루어졌으
 며,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대책 중 수화통역인력양성지원, 고용 수화통역 인력
 비의 인건비 지원, 민간 자격제도 도입(김철관 2003; 이준우 2004: 99)과 같은
 수어통역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게 된다.

이와 같은 수어통역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될 수 있는 배경으로 국
 내외 환경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 수화통역사 공인제도
 (1989)와 농인에게는 획기적인 의사소통 보장법으로 일컬어지는 미국 장애인법
 (ADA)의 발효(1990)가 크게 작용하였다. 국내적으로도 군사정부가 막을 내리
 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의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게 된다. 특
 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사회적 소수집단인 장애인과 농인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더욱 낙후되어 있다는 인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뒷받침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이준우 2002). 장애인들 또한 자신의 목소리를
 확실히 내기 시작했다. 제11회 세계농아인 대회에 참석한 전 세계 청각장애인
 대표자들이 전 교육단계와 전 교육대상에 걸쳐 각 국의 자연수어가 농교육 정

책수립, 행정, 장학 및 교수 등 학습지도에 있어 확실한 중심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선언(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1991)하는 등 스스로가 사용하는 수어의 언어적 권리와 가치를 피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수어 통역 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장애인들이 지적하면서 수어 통역 봉사원들에 대한 자격부여 논란이 일었고, 동시에 전문적 수어 교육과정 이수와 함께 청각장애인들의 실태를 충분히 이해한 공인된 전문 수어통역사에게 통역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청각장애인들의 요구가 급증하게 된다(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1996). 그리하여 ‘자격 공인을 위한 수화통역 관련 사업 시행계획¹¹⁾’(1996년)에 따라 한국농아복지회에서 명칭이 변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주관으로 1997년 제1회 ‘수화통역사 자격 인정 시험’이 실시되게 된다. 그리하여 국내 최초로 공인평가체제를 통하여 수어통역인에 대한 전문자격을 인정하는 수어통역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 결과,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하는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시험을 통해 지금까지 1100여명에 달하는 수어통역사가 배출되었다. 이듬해 1998년에는 전국 시도협회 안에서 14개 수화통역센터가 개소되어 현재 190개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수어통역 서비스 또한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한국농아인협회).

수어 통역 교육 및 연구, 통역 시장에도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었다. 한국농아인협회, 대구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가 협동으로 실시한 <한국수화 첫걸음>이라는 수어통역사 준비를 위한 TV 기초과정 강좌가 선보이면서 대중매체를 통한 수어학습이라는 새로운 수어 교육의 길이 마련되었다(김칠관, 윤병천 2011).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수어 통역 관련 연구 또한 1996년 <한국수화학회>의 모태인 <수화연구회>가 창립되면서 더욱 본격적인 활동이 펼쳐졌다. 수어 교육 방향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수어 통역으로의 전환 및 수어 통역훈련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고, 수어지도의 이론과 실제 연구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기도 하였다(김칠관 1999a/1999b; 김칠관, 윤병천 2011: 40 재인용). 한편 3대 공중파 방송국에서 뉴스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수어통역방송¹²⁾이 실시되었

11) 본 계획은 농인의 평등한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1)수화통역 자격 공인 평가체계 구축, 2) 수화통역인 자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3) 수화통역사의 효율적 파견과 설치, 4) 한국수화의 체계적인 연구와 이용, 5) 수화 통역사 집단의 조직 유도 및 지원등을 세부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이준우 2004).

고, 1995년에는 장애인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농학생을 비롯한 장애학생들이 대거 대학 진학을 할 수 있게 되어 교육현장에서의 통역이 필요하게 된 만큼, 전문화된 수어통역 활동의 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쳐 언어로서의 수어 발달은 물론 도우미에서 통역사로서의 수어통역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수어통역사 자격 공인제도 마련을 통한 자격을 갖춘 수어통역사 배출, 수어통역센터 개설을 통한 체계적인 수어통역사 파견 및 관리 운영, 수어 통역을 위한 다양한 수어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방송 및 교육통역과 같은 전문화된 통역시장 형성 등 수어 통역과 관련하여 괄목할만한 성과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역 교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점이 있다. 비록 본격적으로 수어 통역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통역사 양성을 위한 기초 교육이 실시되었으나 이러한 교육 자체가 정규 교육과정으로 진입하지 못한 것이다. 이미 1990년에 57개교, 1993에 70여 개교 대학이나 전문대학 수준의 기관에서 수어통역 전문 인력양성이 이루어진 미국이나 수어통역사 전문직원양성과정이 개설된 일본과 달리(이미영 2005) 국내에는 단 하나의 수어 통역 전문양성기관도, 관련 프로그램도 마련되지 못하였다. 이는 결국 점차 전문화되는 수어 통역 시장의 요구조건과 수요확장에 통역인력양성과 공급이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 발달이 그만큼 더디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 구어 통역 교육

1979년을 시작으로 구어 통역 교육은 전문 통번역사 양성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획기적인 변화를 겪었다. 1970년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외국과의 교류가 점차 확대되면서 통번역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외국어와 통번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과거 통번역이 외국어 학습도구로 여겨졌다면, 통번역이 ‘언

12) 수어통역방송이란 “농인을 위하여 음성으로 전달되는 방송내용을 수화통역자의 통역을 함께 방송하거나 수화자가 직접 방송의 주체로서 기능하는 시스템”이다. 국내 최초 수화통역방송은 1979년 5월 5일 ‘어린이날 경축 대잔치’의 수화통역이다(김태욱 2007).

어를 도구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언어가 통번역을 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즉, 전문적인 통번역이란 문화 간 의사소통 행위이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단 외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모국어 능력, 배경지식, 주제전문지식 등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된 요구조건을 배경으로 1979년 아시아 최초로 국가 산업화 수요에 따른 통번역 인재 육성 목표라는 기치 하에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시통역대학원(이하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혹은 GSIT)이 설립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국제회의 동시·순차 통역사, 전문 번역사 양성의 산실이 되었다. GSIT는 7개 언어(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이후 독일어 추가) 학과를 개설하여 전문 통번역 교육을 시작하였다. 당시 외국어와 통번역에 대한 인식차이는 교육 방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불러왔다. 발음, 문법, 어휘, 의미 등의 언어 내적 구조와 규칙성을 반복 습득하는 외국어 숙달 교육과 달리, 통역 교육은 언어능력을 기반으로 의미 이해, 재표현 방법, 전달 능력까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언어정보교류와 의사소통능력 제고에 목표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초기 GSIT의 교육은 외국어 교육과 통번역 교육이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당시 통번역 교육기관이 부재하여 유럽의 교육 프로그램을 참고하였으나 통번역 전문교수진과 교재, 교수법 등의 부재로 인해 교과과정의 틀이 완성되지 않았고, 언어숙달 과목이 지나치게 많이 차지하는 등 전문 통번역 교육보다는 외국어 학습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김진아 외 2014: 318-21).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통번역 교육은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더불어 해외교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역할과 지위가 부상하게 되면서 통역사의 역할 또한 주목받게 되었다. 이를 촉발시킨 가장 대표적인 계기가 88 서울올림픽에서 전문 통역사들의 활약과 1991년 CNN 생방송 TV 동시통역이며, 이를 통해 동시통역사라는 전문직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하게 된다(김대진 2002: 12; 최정화 2001: 16; 원중화 2015: 35-6).

이 시기 GSIT 통번역 교육에도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유럽 등지에서 체계적인 통번역 교육을 받고 귀국한 전문 교수진과 해외에서 언어학을 공부한 전문 교수진들이 통번역 교육에 대거 투입되면서, 전문적인 통번역사 양성 취

지라는 설립 목표에 걸맞게 통번역에 대한 단순한 지식 전수도, 통번역 학문에 대한 이론적 소양을 쌓는 것도 아닌 실제적 통번역 수행을 가능케하는 실무 기술의 연마를 목표로 삼기 위한 실습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 요구되는 통번역 능력 개발에 맞는 커리큘럼 개발 등 전문 통번역 교육 체제의 완성화 덕분에 1991년에 GSIT는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최초로 AICC가 인정하는 세계 21개 우수 고등통역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7년에는 통번역 전문대학원으로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그 성과를 인정받게 되었다(김진아 외 2014). 이와 같은 국내외 정치, 경제 상황 및 국내 통역 교육 제도의 안정적인 확립을 바탕으로 1997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이 개원하면서 국내 통번역 교육기관 확대의 출발을 알리게 된다. 이러한 전문 통번역 교육기관 수 증가는 결국 시장에 전문 통번역사의 체계적인 배출과 공급되는 통번역사에 대한 품질 보증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 시기 통번역 시장은 언어권별로 사정이 매우 달랐다. 영어권 통번역의 경우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고, 일어의 경우는 균형적 수급을 이뤘지만, 불어를 비롯한 기타 언어권의 경우 시장의 수요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이다(최소희 1995). 당시 수요가 미미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시장 가능성을 염두하고 다양한 언어권별로 전문 통번역교육을 실시하고 인재를 육성한 것은 오늘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한편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는 통역분야의 학문적 성과도 이루어진다. 통번역학이 언어학의 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나 다학제적 독립학문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김련희 2011: 25). 1999년에는 GSIT에 통역학 관련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본격적인 통번역연구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GSIT 통번역연구소 개설(1997년), 한국통역번역학회(1998년), 한국번역학회(1999년)가 설립되었으며, 통번역학연구(1997년), 통역과 번역(1999년)이 발간되는 등 통번역관련 전문 연구소와 관련 학회 설립, 통번역 전문 학술지가 발간되면서 통번역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그 밖에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국내 여러 민간단체에서 전국 단위의 번역능력 인증시험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가운데 응시자 규모와 시행 주체의 공신력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9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¹³⁾ 주관의 번역능력인정시험이라 할 수 있다(정연일

2006: 2). 본 시험은 능력있는 번역가를 양성하고, 언어권별로 번역상을 수여함으로써 국내외의 문화를 소개 및 교류 지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번역공개 강좌를 실시하여 번역가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외국어번역을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나(한국번역가협회), 번역능력인증시험에 대한 인지도 및 사회적 인식이 발전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번역능력인증시험이 국가공인 자격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통역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기관이나 단체도, 관련 인증시험시행을 위한 시도조차 없었던 만큼 이 시기는 통번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공인인증시험에 대한 필요성과 진지한 고민이 제기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2.2.3 통역 교육 발전기(2000년~현재)

가. 수어 통역 교육

2000년대 접어들면서 국내 수어 통역 교육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수어 통역 교육 및 통역사 양성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수어의 언어학적 연구 및 발전과 더불어, 대외적으로는 2002년 미국 갈로벳대학교에서 개최된 Deaf way II 행사의 영향으로 수어통역사 전문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이준우 2004: 96-7). 그리하여 2002년 국내 최초로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에 국제수화통역학과가 설치되었다. 국제수화통역학과는 명칭 그대로 한국수어통역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세계농아인연맹(WFD) 공식적인 행사에서 사용하는 공식언어인 국제수화와 함께 수어관련 이론과 수어 통역을 주된 교과목으로 지도함으로써 아시아에서 국제수화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전공으로 경쟁력을 갖추었다. 게다가 미국수화와 수화학 및 통역에 대한 이론과 연구를 하는 학문적 특성을 갖출 뿐만 아니라, 재활학과로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수화학으로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학문적 연구 기반이 구축되었다(나사렛대학교 국제수화통역학과 홈페이지). 2002년에는 2년제 학부 과정으로 국립

13) 한국번역가협회는 번역가 양성과 그 권익옹호를 위하여 1971년에 창립된 비영리 단체로, 1974년부터 UNESCO의 자문기구인 국제번역가연맹(FIT)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한국번역가협회홈페이지).

한국재활복지대학교 수화통역과가 설치되어 기초수화, 수화실습부터 수화통역 과목은 물론 상담심리, 속기와 같은 교과목도 개설되는 등(로단 2005) 공공통역 중심의 수업도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2005년에는 4년 과정의 나사렛대학교 수화통역전공 교육과정 신설로 이어졌으며, 현재 기초수화부터 시작하여 수화통역입문을 거쳐 교육, 법률, 의료, 행사, 방송 등 지역사회 통역위주의 과목을 중심으로 통역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까지 국내에는 총 3개 정규 교육기관에 수화통역학과가 설립되었으며, 이들 교육기관 모두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어통역사 배출을 목표로 두는 만큼 체계적인 수어 및 수어 통역 교육과 훈련을 지향하고 있다.

교육기관의 설립은 학제적 학문으로서 수어통역(학)이 국내 학계에 발걸음을 내딛게 했다. 한국수화학회를 통해 시작된 연구가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어 2000년대 들어 수어의 언어적 특성은 물론 수어통역, 수어 동시통역 변환과정, 수어통역 오류분석, 수어통역사, 수어통역 서비스, 수어 통역사제도, 수어통역양성교육과정, 수어통역센터, TV수어통역, 설교수어통역, 교육수어통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어통역의 연구 성과들이 쌓이게 된다.

이와 더불어 수어 통역의 수요 또한 보다 전문화, 세분화되어 전문시장을 형성하였다. 1995년부터 장애학생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한 결과, 특별전형(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포함)을 실시하고 있는 전문대학교 4년제 대학의 수가 2000년대 들어 크게 늘어났다.¹⁴⁾ 대학에 진학하는 농학생의 수도 동시에 늘어남에 따라 교수의 강의를 전달해주는 수어통역사의 역할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방송법 시행령에 수화,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의 방법을 이용한 장애인의 시청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권장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수어통역 방송이 활성화되었다. 2002년에는 선거통역방송에 대한 수어통역방송이 주를 이루기도 하였고, 오늘날에는 뉴스를 중심으로 수어방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전문 수어방송통역사의 역할 또한 부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회의 시장에서의 수어통역사 수요 또한 증대되고 있다. 한국농아인협회가 세계수

14) 1995년 총 18개교에서 2005년 64개교, 2014년에는 121개교로 늘어났으며, 이를 통해 입학한 학생은 1995년 217명에서, 2005년 389명, 2014년에는 721명까지 증대되었다(교육부 2014 특수교육연차보고서).

화통역사협회에 가입(2007년) 하는 등 국제교류를 활발히 추진하면서 국내 수어통역사들 또한 세계농아인연맹총회, 세계수화통역사협회 회의, 아시아 농청년 대표자 회의, UN 장애인권리위원회 회의와 같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회의 수어통역사’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게 된 것이다.

한편 수어 통역 수요가 늘어나고 통역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수어통역사 양성의 질과 평가기준의 높은 수준 유지, 재교육 의무화 및 교육방법 개선, 소비자 중심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자기 개발 등에 관한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이준우 2004: 102). 이에 한국농아인협회는 국가공인수화통역사 시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어통역사를 배출¹⁵⁾하면서, 동시에 2004년 4월에는 제1회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사자격 인정시험을 실시하여 청인통역사 뿐만 아니라 농인수어통역사를 배출함으로써 의료, 복지, 법률, 교육, 사회, 문화 등의 전반에서 농인들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돕는 환경을 더욱 개선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어통역사 보수 교육¹⁶⁾을 통해 통역사 재교육을 실시해 수어통역의 질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수어강사 및 통역전문인 양성 교육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서울수화전문교육원도 서울특별시 지원을 받아 2009년부터 운영되면서 수화 입문반, 회화반을 비롯하여 수화통역실습반, 수화통역반, 청각장애인통역사 대비반과 같은 다양한 수화 교육 과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다수의 국가공인 수어통역사를 배출하고 있다.¹⁷⁾ 이렇듯 국내 수어통

15) 자격증은 현재 교육(대학, 대학원, 기타 교육 통역), 의료(병원통역), 법률(법원, 경찰 관련통역), 미디어(뉴스, 예술 등의 방송통역), 직업(취업알선, 교육, 상담들의 직업을 위한 통역), 의식(종교, 장례식, 결혼식 등 각종행사), 민원(관공서 이용 등), 수화통역 행정(문서작성 및 관리, 전화 및 내방객 면담, 회의 및 세미나)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한국농아인협회).

16) 보수교육은 수어통역사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수어통역사 자격 유지 프로그램으로 현재 ‘수화통역평가관리규정’에 따라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직영 교육과 외부 교육기관에 의한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수어통역사 자격증 취득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5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내용은 통번역 기초연수, 통번역 전문 학습, 통번역 전문 이론 및 실기 연수로 구성된다. 미 이수 시 자격이 정지되며, 3회 이상의 자격정지시 자격이 취소되는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한국농아인협회).

17) 서울수화전문교육원은 서울특별시 지원을 받아 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9년 5월 256명 대상으로 첫 수화교육 과정을 개설·개강하였고 2014년 기준 연간 수강생

역사 양성을 위한 교육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제도권 안팎에서 체계화되고 있다.

수어 통역 교육의 이러한 가시적 발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된다. 첫째, 통역사의 부족이다. 전국 농아인은 35만여 명에 달하는데 수어통역사는 2014년 기준 11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통역사 1인당 350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¹⁸⁾. 둘째, 수어통역사의 역할 정립문제이다. 기존에 가족이나 교사 등에 의해 원조자로서의 수어 통역 성격이 아직 강하게 남아, 체계적인 수어 통역 교육과 훈련을 거쳐 통역사를 배출하더라도 이들이 통역사로서의 역할은 물론 복지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어통역사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인가에 어려움이 많다(김연신, 이준우 2013: 108). 셋째, 통역사의 전문성 확보이다. 오늘날 수어 통역 시장은 병원, 관공서, 종교, 각종 행사 등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을 뛰어넘어 미디어, 교육, 법률, 국제회의 등의 고도화된 통역 수준을 요구하는 시장이 크게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교육 수어 통역에서도 전공별 전문 수어통역사와 수어 통역 지원시간 부족 문제가 대두(김유진, 윤병천 2008: 92)될 뿐만 아니라 실력없는 통역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방송통역 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수어통역방송 프로그램의 질적인 확대 필요성¹⁹⁾과 더불어 수어통역사의 수어 속도, 수어방식, 수어오류와 같은 문제제기와 수준 높은 수어통역사의 확보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김태욱 2007: 61). 이는 수어통역교육기관의 확장 및 전문 통역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이 6400여명에 달할 정도로(서울수화전문교육원홈페이지) 수어통역사 배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 18) 이정자(2003)는 전업 전문직의 수어통역사가 청각장애인 50~100명당 1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어통역사를 파견하는 수화통역센터는 전국적으로 194곳이 있다. 각 센터마다 2~4명의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이는 전국의 35만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어통역을 제공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수화통역센터가 부재하거나 보유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지방 거주 농아인들의 편의 보장에 어려움이 많다(박인기 2014.03.06).
- 19) 시·청각장애인의 행복추구를 위해 기존에 재난방송, 장애인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제한된 수화, 자막, 화면해설 등을 교양, 드라마, 오락프로그램 등으로 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나. 구어 통역 교육

IMF 시대라 하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통번역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다양한 통번역 수요의 증가이다. 한국산업의 다변화와 세계화 추세에 따라 외국과의 정치, 경제적 접촉이 늘어나고, 외국 이주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국제회의와 통번역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정혜연 2008: 460; 김진아 외 2014: 334). 게다가 과거 국제회의통역과 비즈니스 통역, 관광통역으로 요약될 수 있던 통역 시장에 관공서, 학교 업무, 병원진료, 경찰서, 법률 분야 등 공공 및 지역사회 통역 수요가 새로이 창출되었다(정혜연 2008: 461). 통번역 시장에서 주류언어였던 영어 외에도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외국어 통번역 수요 또한 크게 늘게 된다. 이러한 통역 시장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통번역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증가로 이어졌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중심으로 제주대 통역번역대학원(2000년), 선문대 통역번역대학원(2001년), 한동대 통역번역대학원(2001년), 부산외대 통역번역대학원(2003년), 서울외국어통역번역대학원(2003년) 등 전문 통번역 교육 대학원의 수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고려대, 계명대, 동국대, 중앙대 등의 국제 대학원에도 통번역 과정이 개설되었다. 게다가 그간 문학 또는 언어학에 집중하던 학부에서의 외국어 교육과정에 실용주의 학문을 중시하는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발맞추어 통번역과정이 늘어나게 되면서, 2003년 한국의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설립을 필두로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각 대학에 통번역 전공과정 설치 혹은 외국어 계열 학부에 통번역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가 총 69개교에 달하게 된다(이혜승 2012: 181). 이렇듯 전반적으로 이 시기는 통번역의 수요와 공급 모두 급속히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김진아 외 2014: 335).

통번역학 또한 독립적인 학문으로서 국내 학계에서 당당히 위상을 굳히게 된다. 2000년 한국번역학회의 <번역학 연구>, 2003년 한국통번역교육학회의 <통번역교육연구>, 2011년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의 학술지 <T&I Review>가 발간되기 시작하였고, 2008년에는 동국대 번역학연구소가 개소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대 말부터 오늘날까지 총 1000여 편의 통번역 논문, 그 가운데 통역 논문이 220편 이상을 기록하는 등(원종화 2015: 55) 연구 성과가 크게 쌓였다. 특히 통역 교육이론 소개, 커리큘럼 소개와 분석, 통역 교수법(교육 방법론), 수업운영 방식 등의 통역 교육 연구는 국내 통역연구 초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

지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할 만큼 주된 흐름을 차지해왔으며, 이는 통번역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졌다.

한편 GSIT는 2004년 아시아 최초로 세계통역번역대학원협회(CIUTI)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2014년 가입 10주년을 맞이하는 등 국내를 뛰어넘어 아시아에서 명실공히 통번역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전문적인 통번역 교육을 시작한지 불과 35년 만에 국내 통역사 양성 교육은 크게 발달하여 안정적인 교육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지만, 구어통역 교육이 직면한 문제는 여전히 다양하다.

첫째, 통역 교육의 차별화이다. 대학에서의 통번역 교육의 확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 짧은 역사로 인해 교과과정 등이 공고히 자리잡지 못한 실정이다(김련희 2011: 20). 특히 이론과 교육이 아닌 실습과 훈련위주의 학부 교과과정에 관한 적절성 문제(이상빈 2015), 대화중심의 커뮤니티 통역보다 회의통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통역수업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김순미 2015) 등 학부와 전문대학원에서의 통역 교육 차별화와 발전방향 모색에 관한 논의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김순영 2006; 조성은 2007; 정혜연 2008; 남원준 2009; 김련희 2011; 이상빈 2013/2015 등).

둘째, 통번역 시장관리 문제이다. 지금까지 구어 통번역 교육기관은 전문대학원으로서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 통번역사에 대한 품질을 철저히 보장해왔다(김진아 외 2014: 333). 그러나 교육기관의 수가 늘면서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문 대학원의 경우 대학원마다 입학 기준이 다르고 졸업시험의 기준도 달라 통번역 능력과 품질에 대한 검증이 어려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부재하다. 1990년대부터 통역사 국가 인증제 설립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지만 아직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통번역사 스스로 통번역의 품질과 전문성을 높이고 통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2007년 한국통번역사협회(KATI)를 만들어 우수한 통역사들을 가려내기 위한 ‘통역사 국가 인증제’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부재하다(곽중철 2015.02.27). 그 밖에 품질 관리를 위한 정규과정 외에 사후교육과정 혹은 보수교육 또한 제도적 확립 필요성만이 제기될 뿐,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3. 비교결과

앞서 광복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수어 및 구어 통역 교육 발달사를 크게 세 단계(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비교하여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수어 및 구어 통역 교육 발달 양상 비교

| 시기 | 범주 | 수어 통역 교육 | 구어 통역 교육 |
|--------------------------|-------|---------------------------------------------------|--------------------------------------------------|
| 발아기 (광복 이후 ~ 1978) | 교육 주체 | 대한농아협회 서울농아학교 서울영락농인교회 | 한국외국어대학교 |
| | 교육 내용 | 수어 | 외국어 |
| | 통역 주체 | 농아인 가족 농학교 교사 | 외국어 학습/능통자 |
| | 통역 역할 | 도우미 혹은 대리인 | 외국어 능통/전문가 |
| | 통역 분야 | 일상 생활, 관공서 등 | 비즈니스, 관광 등 |
| | 특징 | 수어:구화법의 도구 농아인협회 설립 | 통번역:외국어 교육도구 전문 통역교육기관 부재 |
| 성숙기 (1979 ~ 1999) | 교육 주체 | 한국농아복지회 | 한국외대통번역대학원 이화여대통번역대학원 |
| | 교육 내용 | 수어 → 수어통역사 준비를 위한 기초과정 | 외국어 학습 성격의 통번역 → 실습위주의 통번역 훈련 |
| | 통역 주체 | 농아인 가족 농학교 교사 대학생 및 자원 봉사자 | 외국어 학습자→통번역전문가 |
| | 통역 역할 | 봉사자 → 전문가격증 소지한 수어통역인 | 외국어 전문가 → 전문통역사 |
| | 통역 분야 | 일상 생활, 관공서 → 방송, 교육, 법률, 의료 등의 지역사회 통역으로 확장 | 산업, 비즈니스, 관광 → 방송,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전문 영역으로 확장 |
| | 연구 조직 | <수화연구회> 학회 | GSIT 통번역연구소 한국통역번역학회 |

| | | | |
|----------------------|----------|------------------------------------------------------------------------|--------------------------------------------------------------------------------------------|
| | | | 한국번역학회 GSIT 박사과정 개설 |
| | 학술지 | | 통번역학연구 통역과 번역 |
| | 특징 | 수어와 통역교육 차이 수화통역자격인정시험 민간통역교육 정규 교육과정 미진입 | 언어와 통역교육 차이 번역능력인증시험 통역교육 제도권 진입 |
| 발전기 (2000 ~현재) | 교육 주체 |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나사렛대학교 서울수화전문교육원 | 한국외대통번역대학원 외 6개 통역번역대학원 국제대학원 69개교 이상 전국 대학 |
| | 교육 내용 | 수어 및 통번역/ 국제수어 | 외국어/ 통번역 |
| | 통역 주체 |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청인 및 농아인 | 통번역전문가 |
| | 통역 역할 | 직업으로서의 통역사 사회복지사 | 전문직으로서의 통역사 |
| | 통역 분야 | 의료, 법률, 민원, 행정 → 교육, 방송, 국제회의 | 국제회의, 정부기관, 기업체 외 → 관공서, 학교업무, 병원, 경찰서, 법률, 방송, 박람회, 전시회, 현장 시찰 등 수행 및 안내통역 시장 |
| | 연구 기관 | 한국수화학회 | 한국통번역교육학회 번역학연구소 |
| | 학술지 | | 번역학연구 통번역교육연구 T&I Review |
| | 특징 | 통역교육의 제도권 진입 수어통역관련 연구 확대 수어통역사 보수교육 수어통역사 부족 통역사 전문성 제고필요 | 통번역교육기관 수 증대 통번역 연구 기관 증가 통번역 연구성과 확대 지역사회통역시장형성 과정별 교육차별화 필요 |

이를 바탕으로 구어 및 수어 통역 교육 발달 양상의 특징 및 차이점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어 통역 교육의 특징은 전통적으로 대학중심 양성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다. 1970년대 말에 이미 통번역 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통번역교육을 정착시켜 왔으며, 실용주의 학문의 추세에 따른 학부 통번역 교육 시장 또한 크게 성장하면서 76개 이상의 전문대학원 및 대학에서 통번역 교육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국내 구어 통번역 교육은 안정적인 발달을 이루어가고 있다. 반면, 수어 통역사 양성 과정의 경우 2000년 이후에서야 비로소 제도권 내에 교육체계가 형성되어 구어 통역 교육에 비해 20년이나 뒤쳐졌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내에서도 통번역 교육시장을 이끌고 있는 구어 통역 교육과 달리 수어 통역 교육은 가까운 일본보다도 뒤쳐져 있다. 특히 정규 교육기관의 수도 3개 학교에 불과하여 오늘날 수어통역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농인 수에 비해 통역사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결과를 낳았다. 이는 통역수요가 형성되기도 전에 이미 전문통역사를 육성한 결과 오늘날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고 있는 구어 통역 교육 상황과 크게 대비된다.

둘째, 수어 통역 교육은 정규 교육기관으로의 진입 이전에 수어통역사 자격 인정시험이라는 사회적 제도가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수어 통역 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어 강사 및 통역전문인 양성교육은 물론 수어 통역사 보수교육과 같은 사업과 관련 프로그램을 이미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사기관인 민간협회에만 의존하고 있기에 그 운영에 있어 국가의 개입이나 수어 통역 교육기관의 역할이 가시적이지 않는 한계가 있지만, 이는 농아인의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의 지속적 지원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 권리실현을 위한 자구적 노력에 기대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구어의 경우 사회적 인지도가 낮은 번역능력인증시험을 제외하고는 수어 통역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한 통역사인증제도와 통역사 보수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이 그 필요성만 논의될 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된 사례조차 없다.

셋째, 국내 수어 통역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교과과정이 재활학과 복지학이라는 틀 내에서 설립되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직까지 한국사회 내에서는 수화라는 병리학적 접근에서 수어라는 문화·언어적 접근으로의 완전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로 인해 구어통역사는 유망 글로벌 직업인 고소득 전문직 동시통역사(헤럴드경제 2015.

06. 12)로서 사회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수어통역사는 지역사회통역사도 아닌 사회복지사나 자원봉사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수어통역사의 역할 정립과 처우 문제는 계속해서 대두되어 왔다. 문제는 이러한 통역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가 농아인들의 권리와 이들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²⁰⁾.

넷째, 구어와 수어 통역시장 모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통역 시장의 새로운 수요창출 양상이 반대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수어 통역의 경우 일반 생활 및 공공통역에서 점차 병원, 의료, 교육, 행사, 종교 등의 지역사회 통역 수요가 형성되다가 오늘날에는 방송, 강의, 회의, 국제행사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고급통역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반면, 구어 통역의 경우 국제회의, 비즈니스 등의 고급통역 시장이 통역 수요를 이끌다가 점차 의료, 법률, 박람회, 전시회와 같은 각종 행사 및 관공서 통역의 공공 및 지역사회 통역의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수어 통역의 정규 교육은 과정 별로 교육 내용의 차별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학원 과정은 국제수화를 교육하는 만큼 회의통역을 지향하고, 4년제 학부과정은 법률, 의료, 행사, 방송 등의 통역 수업을 통해 지역사회 통역을, 2년제 과정은 공공서비스 통역을 지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통역수요가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이후 교육과정이 제도화된 만큼 시장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구어 통역 교육의 경우 전문대학원과 학부교육이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은 공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부 교육과정의 목표나 통역시장에서의 역할 가능성에 관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수어 통역과 구어 통역 관련 연구가 분화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

20) 일례로, 구어통역사의 경우 화자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통역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일반적인 형태이므로 그 상대가 국가정상일지라도 그 옆이나 뒤에서 통역을 수행한다. 그러나 수어통역의 경우, 주요 인사 옆에 수어통역사가 있는 것이 잘못된 의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수어통역사를 단상의 가장자리나 회의석 말미에 위치하게 하는 경향이 다분하다. 이에 따라 수어를 봐야 하는 농인단체장 자리도 수어통역사의 위치에 마주하는 후미진 자리로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미혜 2015. 07. 17). 이는 구어통역사와 수어통역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현격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2000년 이후 통역 교육을 비롯하여 수어와 구어 모두 많은 연구 성과를 도출하였으나, 수어 통역 연구는 재활학, 특수교육, 특수아동교육학, 복지학을 기반으로 성장한 반면, 구어 통역 연구는 통번역학에 뿌리를 두고 성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내 통번역학 관련 학술지에 단 한 건의 수어통역 연구가 등재된 바 없고, 구어와 수어 통역사들의 협업 시장이 이미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연구가 부재하므로 서로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한국의 통역학이 언어유형으로나 통역방식으로도 엄연히 통역학의 한 범주에 속하는 수어 통역을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결론

지금까지 수어와 구어 통역 교육 발전 양상을 통시적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구어 통역 교육사는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만큼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며 교육기관과 교육 내용, 통역사의 활약 등의 사료가 풍부한 반면, 수어 통역의 경우 수어교육사를 확인하기 힘들만큼 문헌이 부재하여 비교 자체가 불가하였다. 한편 해방 이후 현대사적인 측면에서 수어와 구어 통역 교육을 비교 고찰한 결과 도출한 통번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화가 아닌 수어 통역 훈련의 고등교육화 시대를 위한 대비를 해야 한다. 분석 결과 수어 통역 교육은 농아인의 사회적 참여가 확대되고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이들의 의사소통 권리가 실현될수록 일반 공공 및 지역사회 통역 수요를 벗어나 고급 통역 시장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농아인의 고용 및 교육 기회, 법적권리확대가 수어 통역 수요의 질적, 양적 확대를 필요로 하면서 전문적 지식, 기술 및 학술적 조사, 연구능력 갖춘 수어통역사 양성(이준우 2004: 183), 즉 수어 통역 훈련의 고등교육화가 필연적인 추세로 된 것이다. 21세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수어의 언어적 지위 인정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조류이다. 그러므로 농아인들의 활동 무대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결국, 오늘날 주류 수요를 이루고 있는 지역사회 수어통역사 양성을 뛰어넘어 회의통역사 육성 또한 새로운 시대적 교육 과제가 되는 것을 의미

한다. 실제 청각장애인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자국 수어만큼은 아니지만 국제수어의 통역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고, 국제수어의 경우 소위 ‘native speaker’가 부재한 만큼(AIIC 홈페이지) 국제수어 통역 훈련을 통한 고급통역사의 양성수준 만큼 그 시장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어 교육은 물론 통번역 교육의 주체인 구어 통번역 교육기관들도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수화가 아닌 ‘소수언어로서의 수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수어 통역교육 전문화에 있어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어와 구어 통역 훈련의 통합 교육 실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미 이를 실천하고 있는 서구의 선진 통역 교육기관들의 수어 통번역 교육 실태와 교육 과정, 관련 프로그램 도입 절차 등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국내 통번역 교육 현실에 맞는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²¹⁾

둘째,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 수어 통역 교육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구어 통역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구어 통역사 국가인증제도와 통역사 보수교육과 같은 사후 교육과정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수어 통역 교육이 제도적 교육, 즉 정규과정 진입에서는 구어에 크게 뒤처지지만, 인증제 설립, 보수교육 등과 같은 사회적 제도는 이미 성숙기인 2000년 이전에 정착되어 통역 능력과 품질에 대한 검증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어통역사 인증제의 경우 비록 현재의 자격인증제에서 국가인증제로, 단일자격체제에서 영역별 세분화 체제로 발전시켜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²²⁾ 이미 나름의 제도를 갖추어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구어 통번역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국내에서 운영되는 수화통역사인인증제도 외에 미국의 수어통역사 인증 및 평가제도인 RID 국가인증제도는 통역사 인증제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²³⁾(Pöchhacker 2004, 이연향 외 역 2009: 256). 또 인증 후에

21) 미국의 경우 고등교육 6개 기관만이 참여한 국립 통역사 양성 컨소시엄에서 수어통역 교육을 추진하였으나,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97년 수어 국제회의의 통역 교육을 위한 교육자 회의를 창설하여 수어통역 교육 담당 인력을 양성하기도 하였다(Isham 1998; 정혜연 2008: 246 재인용).

22)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화통역사 자격인증제도는 단일 종류 자격증으로 전문 통역 영역이나 통역 수준 확인할 수 없다(김연신, 이준우 2013: 132).

23) 이 제도는 한국 수화통역사인인증제도와 달리 수어통역 자격 수준에 따라 축어역자격

도 국내 보수교육과 마찬가지로 자격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격증 유효기한 연장을 위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정혜연 2008: 246). 그러므로 구어 통역교육기관은 해외 및 국내 수어통역사의 인증제도와 보수교육제도의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을 검토하고, 이들 제도의 장점은 반영하고 단점은 교훈삼아 국내 현실에 적합한 구어 통역분야의 인증 및 보수교육 제도적 절차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수어와 구어 통역 분야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뢰히하커(Pöchhacker 2004, 이연향 외 역 2009: 301-2)는 통역학이 나아갈 방향으로 일찍이 ‘융합’을 제시한바 있다. 통역학과 같이 분야가 작고 전문적인 학문의 경우 분화적 성장보다는 동반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피력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 통역학의 경우 구어와 수어 통역 연구가 분화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통역학이 통번역대학원에 박사 과정 개설, 전문 연구소, 학회 설립 및 학술지 발간을 통해 학제적으로 확고한 기반을 자리 잡은 지 불과 15년 안팎에 불과한 만큼 통역의 다양한 유형을 아우르지 못한 물리적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수어와 구어 통역은 구현 매커니즘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다. 더욱이 구어 및 수어 통역 환경의 빠른 변화는 통역사들 간의 협업체제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통합교육의 시대가 열릴 수 있는 만큼 이들 언어의 통역 수행과 교육의 특징 및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구어와 수어 통역(학)은 통역의 제반분야 관련하여 각기 다른 영역에서 연구를 축적해 왔으므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우선적으로 공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 학술대회나 세미나 개최 등이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역사회 통역분야에서 축적한 수어통역의 교육 경험과 연구 성과는 오늘날 구어 학부 통번역 교육의 방향 설정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 밖에 구어-수어 조합의 릴레이 통역에서의 피

(transliteration Certificate), 통역자격(interpreting Certificate), 역통역자격(Reverse Skill Certificate), 종합기술자격(Comprehensive Skill Certificate)으로 나누고, 이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명인 종합기술 자격(Master Comprehensive Skill Certificate), 연기예술 전문자격(Specialist Certificate:Performing Arts) 등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등 통역 수준,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정혜연 2008: 246).

보트 역할 교육, 수어와 구어 동시통역의 청성시차 특징 및 차이점, 지역사회 통역환경에서 수어와 구어 통역사들의 개입 양상 및 역할 인지, 통역 평가 기준 및 기대치 차이, 품질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 진행이 가능하다²⁴⁾. 인그램(Ingram 1978)은 수어통역을 포함하지 않은 통역에 관한 설명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수어와 구어 통역의 공동연구는 그간 통역학 틀 내에서는 공백으로 남아있던 소수 언어유형에 대한 연구를 채우면서 궁극적으로 구어와 수어 통역 연구의 양적, 질적 동반성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내 통역학 자체의 외연을 확장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어와 구어 통역 교육 발전 양상에 관한 비교를 통해 향후 국내 통번역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한 본 연구는 통역학이라는 큰 틀 내에서 수어와 구어 통역 교육의 문제가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한 데 의의가 크다. 더욱이 통역 교육은 통역사로서의 개인적 발전과 통역 문화의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국가의 발전과 경제성장 자체가 결과적으로 교육에서 어떤 인재를 육성하여 공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학문명백과) 구어와 수어통역사의 육성 자체가 사회경제발전과 불가분의 유기적 관계에 놓여있는 만큼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비록 통역 교육 발전 양상 비교에 그쳤지만, 향후 교과 과정, 교육 정책 비교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통역 교육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주해 (1992) 「외국의 수화통역사 제도-미국을 중심으로」, 『수화통역사 제도화를 위한 연구발표회』: 23-34.
 강주해(역) (1998) 『수화통역-기본참고서』, 한국농아인협회.

24) 피히하커 또한 통역학의 개인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융합 양상으로 국제회의 통역을 연구분야로 하는 다수의 학자들이 커뮤니티 기반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연구를 촉진하고 있는 점(Dam, Kalina, Pochhacker), 수어 및 구어 통역 연구자들이 ‘critical link’ 공동체 내 뿐만 아니라 파리학과나 CIUTI 기관 학자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는 점을 꼽은 바 있다(Pöchhacker 2004, 이연향 외 역 2009: 301-2).

- 강창욱 (2000) 「문법수화가 언어인가에 대한 토론」, 『제 2회 공개연구발표회 수화 언어의 미래를 생각하는 세미나』: 27-30.
- 계기훈 (1999) 『한국 농사회의 역사. 농아인과 사회(수화통역사 인정시험 준비 지침서)』: 229-59, 한국농아인협회.
- 곽중철 (2011) 「한국의 의료통역사 교육과 회의 통역사들에 대한 함의」, 『통번역학연구』 14(2): 1-34.
- 김대진 (2002) 『국제회의 통역교육』, 서울: 한국출판사.
- 김련희 (2011) 「학부 번역교육의 현재와 미래」, 『통역과 번역』 13(2): 19-52.
- 김순미 (2015) 「학부 커뮤니티 통역 수업의 타당성」, 『한국번역학회 2015 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58-64.
- 김순영 (2006) 「학부 번역교육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소고: 이론 기반 텍스트 분석 교과목의 도입」, 『통역과 번역』 8(1): 27-43.
- 김연신, 이준우 (2013) 「수화통역의 영역과 수화통역사의 역할수준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7(1): 107-36.
- 김유진, 윤병천 (2008) 「대학 교육수화통역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2): 77-95.
- 김진아 외 (2014) 「한국 통번역교육의 과거, 현재와 미래」, 『통번역학연구』 18(3): 315-40.
- 김철관 (1998) 『한국수화 어원연구』, 인천성동학교.
- 김철관 (1999a) 『수화지도의 이론과 실제』, 인천성동학교.
- 김철관 (1999b) 「이디엄을 중심으로 본 한국수화의 의미구조」, 『수화연구』 2: 2-17.
- 김철관 (1999c) 『수화학습과 수화통역. 농아인과 사회(수화통역사 인정시험 지침서)』: 418-46, 한국농아인협회.
- 김철관 (2001) 「용어로서의 수화, 그 이용 배경과 개변 논의에 대한 검토」, 『한국수화연구회보』 6: 3-9.
- 김철관 (2003) 『수화통역입문』, 나사렛대 재활복지대학원 국제수화통역학과.
- 김철관 외 (1995) 『수화통역 개입의 제도화를 위한 기초연구보고서』, 수화통역대책위원회.
- 김철관 외 (1996) 『수화 관련사업 시행계획』, 한국농아복지회.

- 김철관, 윤병천 (2011) 『수화 통역학개론』, 파주: 양서원.
- 김태욱 (2007) 『한국 TV 수화통역방송에 대한 농인의 인지도 조사연구』,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원준 (2009) 「학부 통번역교육에 관한 일고찰: 선행연구의 주요 논점에 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3(1): 21-51.
- 로단 (2005) 『중국대학의 수화통역사 양성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희 (2004) 『수화통역사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 (2005) 『수화통역사의 활동 실태와 만족도 조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일남 (1992) 「수화통역사는 왜 필요한가?」, 『수화통역사 제도화를 위한 연구 발표회』: 11-20.
- 원중화 (2015) 「국내 통역 연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번역학연구』 16(1): 35-64.
- 유명우 (2000) 「한국의 번역과 번역학」, 『번역학연구』 1(1): 229-48.
- 유정화 (2014) 「조선시대 통번역 교육 연구」, 『번역학연구』 15(3): 125-51.
- 이규환 (1995) 「교사양성 교육체제의 개혁방향: 비교교육학적 측면에서」, 『韓國教師教育』 11: 75-89.
- 이미영 (2005) 『한국수화통역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연구』,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빈 (2013) 「국내 학부 통역전공자 인식 조사」, 『번역학연구』 14(4): 91-113.
- 이상빈 (2015) 「국내학부 영어 통번역 교육훈련의 문제와 해결방향: 한국외대, 동국대, 경희대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9(2): 21-44.
- 이연향 외(역) (2009) 『통역학입문』, Franz Pöchhacker (2004) *Introducing Interpreting Studies*,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정섭 (1992) 「전문수화통역제도의 확립을 위한 제언」, 『수화통역사 제도화를 위한 연구 발표회』: 38-48.
- 이정자 (2003) 『수화통역사의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림대학교 사

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우 (2002) 『농인 재활복지개론』, 서울: 농아사회정보원.
- 이준우 (2004) 『수화통역 입문』, 서울: 인간과 복지.
- 이혜승 (2012) 「학부 통번역 교육 현황 및 교육 방법 연구: 토론과 논쟁 중심의 강좌 운영 사례 보고」, 『통번역학연구』 16(2): 179-98.
- 정기섭 (2003) 「교육학의 체계와 비교교육학」, 『比較教育研究』 13(1): 1-20.
- 정연일 (2006) 「번역능력인증시험의 맥락에서 살펴본 번역능력의 정의」, 『통번역학연구』 10(1): 1-15.
- 정철자 (2013) 「시장 수요 조사에 근거한 한국형 의료 통역 연구」, 『번역학연구』 11(2): 151-72.
- 정철자 (2013) 「학습자 중심의 통역 교육 사례 연구」, 『통번역학연구』 17(4): 157-77.
- 정혜연 (2008) 「통번역 분야 변화에 따른 학부통번역 교육의 새 방향」, 『외국어교육』 15(1): 459-83.
- 조성은 (2007) 「학부 통번역학과의 교육과정 연구: 재학생 대상 실태분석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8(2): 163-91.
- 최상배, 안성우 (2003/2006) 『한국수어의 이론』, 서울: 서현사.
- 최소희 (1993) 「한국에서의 회의통역 현황과 전망」, 『외국어교육연구』 9: 49-91.
- 최소희 (1995) 「한국에서의 통역교육과 통역시장」, 『언어와 언어학』 21: 39-65.
- 최정화 (2001) 『통번역사에 도전하라』, 서울: 넥서스.
- 한국청각장애복지회 (1991) 『청각장애편람』, 서울: 도서출판특수교육.
- 한국청각장애복지회 (1996) 『청각장애편람』, 서울: 도서출판특수교육.
- Ingram, Robert (1978)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and general theories of language, interpretation and communication' in David Gerver & H.Wallace Sinaico(ed.) *Language interpretation and communication*, New York: Pleuam Press, 109-18.
- Isham, P. William (1998) 'Signed language interpreting', in Baker, Mona(ed.)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231-35.
- Padden, Carol & Markowicz, H., (1988) *Deaf in America: Voices from a*

- cultu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ichard, Jack, C (2001) *Curriculum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y Cynthia, B (2000) *Interpreting as discourse process*,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oy Cynthia, B (eds) (2005) *Advances in Teaching Sign Language Interpreters*,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Wilcox, Sherman (1989) *Foreign language requirement: Why not American Sign Language?. ERIC Digest*. Washington, D.C.: ERIC Clearinghouse on Languages and Linguistics.
- Wilcox, Sherman & Peyton Joy (1999) *American Sign Language & a Foreign Language. ERIC Digest*. Washington, D.C.: ERIC Clearinghouse on Languages and Linguistics.

[인터넷홈페이지]

교육부 2014 특수교육연차보고서:

<http://www.moe.go.kr/web/100063/ko/board/view.do?bbsId=348&pageSize=10¤tPage=2&encodeYn=Y&boardSeq=57052&mode=view>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교: <http://www.knuw.ac.kr/>

국제 회의통역사 협회: <http://www.aiic.net/>

나사렛대학교 수화통역학과: <http://cms.kornu.ac.kr/sli/>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http://grad.kornu.ac.kr/>

서울수화전문교육원: <http://www.sdeafsign.or.kr/>

한국농아인협회: <http://www.deafkorea.com/>

한국번역가협회: <http://www.kstinc.or.kr/>

한국외국어대학교: <http://www.hufs.ac.kr/>

[전자사전]

국어국문학자료사전-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list.nhn?cid=41708&categoryId=41711&so=st1.dsc&viewTy>

pe=&categoryType=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학문명백과사전-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list.nhn?cid=44410&categoryId=444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인터넷기사]

곽정란 (2014. 12. 22) 「언어적 소수자로서의 농인」, 『함께걸음』.

곽중철 (2015. 02. 27) 「‘하루 통역료 90만원’ 깎아도 될까요?」, 『뉴스 1』.

김윤종 (2014. 09. 25) 「手話가 아닙니다, 手語입니다」, 『동아일보』.

김철환 (2015. 04. 17) 「수화언어법안의 발의와 쟁점」, 『함께걸음』.

박인기 (2014. 03. 06) 「전문 수화통역사 더 양성돼야」, 『경북일보』.

온라인뉴스팀 (2015. 06. 12) 「[유망 글로벌직업] 고소득 전문직 동시통역사」, 『헤럴드경제』.

이미혜 (2015. 07. 17) 「수화통역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에이블뉴스』.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development aspect of sign language and spoken language interpreting education

Han, Hyun-H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compares the development of spoken language interpreting education and sign language interpreting education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al stages, and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of interpreting education. The analysis show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between spoken and sign language interpreting educations: 1) Spoken language interpreting education has been conducted mostly at the university level, while sign language interpreting education has not been; 2) A social system of Sign Language Interpreter Test was established before sign language interpreting education was introduced, while there is no social system for spoken language interpreters; 3) In Korea, sign language interpreting education is operated and led by rehabilitation studies and social welfare studies; 4) The demand for high-level sign language interpreting is increasing in the society, whereas the demand for community interpreting is increasing for spoken language; 5) The contents and level of sign language interpreting education is different from those of spoken language interpreting education; 6) Studies on spoken language interpreting and sign language interpreting are being conducted separatel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tate the following points: 1) Spoken language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prepare for the academization of sign language interpreting training; 2) Based on sign language interpreting certification system, certification and certification maintenance program for spoken language interpreters should be adopted; 3) Interpreting Studies in Korea can further develop through joint research between spoken and sign language interpreting studies.

▶ Key Words: recognition of sign language as the official language, sign language interpreting education, spoken language interpreting education

한현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노과 강사

hhhpa@naver.com

관심분야: 러시아어 통번역/교육, 문학번역, 수어통역

논문투고일: 2015년 7월 31일

심사완료일: 2015년 9월 2일

게재확정일: 2015년 9월 24일